

하나됨과 나눔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총회주일 헌금은 이번 주까지 모아서 총회로 전달하겠습니다.
- 하반기 지역별 사랑방 방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로운 방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주시요.
- 공동체운영위원회 임시모임이 2시에 자연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멧쟁이학교 5학년 학생들과 장성아 선생님이 9일(월)부터 10월 3일(목)까지 유럽공동체탐방을 떠납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주시요.
- 정태일 목사님, 이월영 사모님이 10일(화)부터 3주간 휴가를 다녀오실 예정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허철영 · 강춘자 권사 가정 (결혼기념)
정연갑 · 이운순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서금선 권사 (남편 기일)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36 호

2024년 9월 8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예레미야와 깊은 구덩이

요즘 성서일기 본문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젊은 나이에 소명을 받아서 나이 많은 노인이 될 때까지, 선지자로서 활동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서 약 45년 동안 예언활동을 했고, 이 기간 동안 무려 3명의 왕이 교체되었습니다. 짧은 3개월이라는 시간을 통치했던 2명의 왕을 포함하면, 선지자의 활동 기간 중 총 5명의 유다 왕이 바뀐 셈이지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에 바빌로니아의 강력한 왕 느부갓네살의 반복된 침략으로 인해 자신의 조국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 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사회 지도층과 유다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기 때문에 가장 혼란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활동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선지자 자신의 고난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38장에는 예레미야가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외친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바빌로니아 군대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방법만이 생명을 살리고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은 유다의 고관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적국의 군대가 포위한 상황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도 어려운 시점에, 예레미야가 적국에 투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니, 그가 지도자들의 미움을 당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는데요, 시드기야는 적국 바빌로니아가 유다의 왕으로 세워놓은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실제적인 권력은 여러 고관들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지요.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뭉술하거나 애매한 것이 아니라 매우 직설적인 어투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선교와 섬김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 차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역의 여파로 유다의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더 이상 예언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고관들은 시드기야 왕을 통해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하려 했지만, 왕이 이를 거절하고 모든 결정을 그들에게 맡기자, 그들은 더욱 잔인한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바로 물이 말라버린 웅덩이에 예레미야를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밧줄로 그를 웅덩이 바닥에 내려놓았지만, 그 웅덩이에 갇힌다는 것은 보통의 정신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던 깊고 넓은 저장고였는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 우기에 모아둔 물을 건기 동안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웅덩이는 평균 7미터, 큰 것은 15미터가 넘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위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 외에는 완전한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바닥은 오랜 시간 사용으로 진흙으로 덮여 있고, 몸을 기댈 곳 하나 없는 깊은 웅덩이 속에서 예레미야가 느꼈을 고통은 상상조차 힘들습니다. 먹을 것조차 없이 자신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곳에 있으면, 감각은 무뎌지고 환각이나 환청이 들릴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건져지기 전까지 마치 땅속 깊은 스올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유다의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을 대신 체험한 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예레미야를 구출할 에티오피아 출신의 환관을 예비하셨습니다. 구덩이에서 건져진 후에도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양보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망에 빠질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춰주십니다.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

한주간의 말씀

“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살피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
<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

< 수요기도회 >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주께 가까이, 주 품에,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기도 :

성경 : 예레미야서 38장

제목 : 고난에서 구원받은 선지자 예레미야

1. 내용: 예레미야가 고난에서 구원받다. (What)

<문단구분>

1~6절 물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

7~13절 에벳멜렉의 구명활동

14~28절 시드기야와의 독대

2. 의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신다. (Why)

- 1)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절망할 수 있다.
- 2) 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한다.
- 3)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구원에서 멀어진다.

3. 적용: 구원의 말씀을 믿자. (How)

- 1)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양보는 없다.
- 2) 하나님의 일에 방관하지 않는 사람이 되자.
- 3)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자.

잠실 야구장에 다녀왔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 학교에서 열린수업 시간에 야구장에 다녀왔다.

섬김이 조별로 저녁식사를 한 후에 버스를 타고 경기장으로 갔다. 경기장에 도착하자마자 경기가 시작 했다. 경기장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LG트윈스와 SSG랜더스의 경기였는데 LG가 홈이고 SSG가 원정이었다. 나는 LG쪽에서 응원을 했다. 야구는 원정이 먼저 공격을 하기 때문에 LG는 수비를 먼저했다. 수비를 할 때는 다 앉아서 응원을 했고 공격을 할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응원을 했다.

첫번째 이닝에서 LG가 SSG한테 3점을 내줘서 정말 아쉬웠다. 열심히 응원을 했지만 결과가 4대2로 져서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져어도 응원을 하는게 신나고 좋았다. 중계방송으로 야구를 봤을 때는 재미가 없어서 왜 보는지 몰랐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재밌었고 야구는 구장에 가서 봐야 재밌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산과 LG가 경기를 할 때는 둘이 홈 구장을 같이 써서 훨씬 응원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SSG와 할 때도 응원을 열심히 해서 더웠는데 그 때는 어떨지가 궁금해졌다. SSG와 아쉬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함께한 응원과 관람은 정말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다. 다음에는 꼭 승리하는 경기를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주 목요일의 경험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야구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졌다.

푸른꿈사랑방 최시원 학생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요한복음 15 : 5,8
28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시 편 51 : 5-7

591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그리스도인의 열매, 사랑하는 사람"

갈라디아서 5 : 1, 13-15
250
설교자
그루터기사랑방
정태일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218

438(1)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인도 : 김병우 정영옥 / 봉헌위원 : 정낙귀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상기후가 반복되는 어려운 중에도
온갖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두어야 할 열매로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인의 열매, 사랑하는 사람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갈라디아서는 '소로마서'라는 별명이 있고, 5장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도 부르는데, 그중의 1절은 주제를 제시하는 절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의 삶을 누리도록 강조합니다. 내용의 중심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13>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삶,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섬기십시오(둘류오)"로 번역된 단어는 '종'과 '섬김'의 두 가지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 되어 섬기라는 뜻입니다. "서로"는 실제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메시지는 자유를 유지하고 누리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 사랑하는 사람. 열매를 거두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갈6:7>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거두어야 할 중요한 열매는 사랑의 대상자 즉,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김병우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꾸러기 점심 식탁에는 밥그릇, 국그릇, 반찬접시와 숟가락, 젓가락, 포크가 놓입니다. 젓가락은 쓸 수 있거나 배우는 꾸러기에게만 줍니다. 서툴지만 작년부터 젓가락을 쓰기 시작한 아름이와 졸업을 앞둔 이든이와 룩이에게 젓가락을 줍니다. 틈이 나면 이든이와 룩이는 젓가락으로 장난감을 옮겨 담는 놀이를 하도록 합니다. 동생들도 하고 싶어하면 끼워줍니다. 점심시간에는 반찬을 하나 정해 젓가락으로 먹기 도전도 합니다. 놀이에 몇 번 끼더니 지음이도 젓가락을 써보려 합니다.

하온이에게는 물이 담긴 그릇을 하나더 준비해 줍니다. 빨간 반찬이 나오면 물에 씻어 먹습니다. 지난주에 씻지 않은 깍뚜기에 도전해서 성공을 하더니 이번주에는 고추장에 버무린 오징어채를 씻지 않고 밥에 감추어 도전하더니만 깜짝 놀라 맵다고 소리를 지르며 입에 밥도 더 넣고 물병을 찾아와 물을 마십니다. 남은 빨간 반찬인 김치는 물에 씻어 조심스레 먹었습니다. 김구이를 좋아하지만 반찬이 들어간 김밥은 싫어했는데 이제 깍뚜기는 좀 익숙해졌는지 김에 밥이랑 씻지 않은 깍뚜기를 넣어 싸서 먹어보더니 깍뚜기를 더 달라고 합니다. 김이랑 같이 먹는 깍뚜기가 맛있다는 건 누가 만들었냐고 묻습니다. 요리 선생님이 담그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은 상추쌈이 맛있다는 건 누가 만들었냐고 묻다가 지난 학기에 요리 선생님이 밭에서 따냈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났는지 누가 딴 거냐고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라고 누구인지 모르는 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라고 답해줍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아직은 더위가 남아 있지만 가끔씩 가을 냄새 실은 바람이 솔솔 부는 한 주였습니다. 월요일부터 어린이는 새 식구를 맞이하였습니다.

5학년 정소니라는 여자친구가 편입을 했습니다. 어린이 모두가 구름다리를 만들어 사뿐사뿐 걸어올 수 있게 했고 축복송을 불러 주며 맘껏 환영해 주었습니다. 소니가 집에 가서 한 말을 부모님께서 전해 주셨는데 '따뜻한 학교로 전학오길 잘했어' 라고 했습니다.

어린이 교사들은 지난주에 이어 2차로 도보여행 답사를 1박2일 다녀왔습니다. 어린이가 목을 카라반에서 자 보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보고, 도보길 이라고 나와 있는 길을 걷다가 정글숲을 헤매며 낭패를 당하기도 하며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를 하고 자정이 다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걸어 보아야 알 수 있는 길, 돌아 나와야 더 좋은 길을 알게 되는 이치. 땀은 범벅이지만 하하 호호 웃으며 안동을 누빈 이들이 오래전 일처럼 꿈만 같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한 주를 보낸 어린이학교입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가을이 찾아옴을 느낀 주간이었습니다. 멋쟁이들은 부서와 동아리를 확정지으며 자신들의 역할들을 확정해나갔습니다. 학생자치회를 통해 각 계획을 공유하기도 하고, 동아리 첫 모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수요일에는 6학년이 9월 모의고사를 다녀왔습니다. 나름대로의 시간과 의지를 발휘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참 기특하고 멋집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모두가 기다리던 야구장 직관을 다녀왔습니다. 기온이 덥고 습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광경에 참여하면서 신나게 즐겼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응원가를 부를 정도로 흥미가 생긴 멋쟁이들이 몇몇 있었답니다.

다음 월요일에는 5학년이 해외공동체탐방 여행을 떠납니다. 약 4주에 가까운 시간동안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며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예정입니다. 많은 날들을 지새며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배움이 있도록,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풀과의 전쟁

이번 여름은 유난히 덥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더운 날이 계속되고 비도 많이 오면서 공동체 마당은 열대 우림지역인 마냥 풀이 무성하고 크기도 나무만큼 자라 뽑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일 화초보다 두 배 이상 자라있는 잡초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제거를 해야지 생각이 가득했지만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는 선뜻 호미를 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밖에 나가면 10방 이상 모기에게 피를 내어주고 시작해야하는 일이기에 자꾸만 일을 미루게 되고 풀을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끝내 예쁜 꽃들이 풀들로 인해 보이지 않게 되고, 녀굴들이 철쭉 나무에 감겨 올라가고... 화단이 아니라 어지러운 풀숲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결심을 하고 멧쟁이들과 노작 시간에 화단을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화초를 남기고 나머지 모든 풀들을 제거하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뭐가 화초고 잡초인지 구분이 쉽지 않아 힘들고 나무만큼 자란 풀들과 힘겨루기를 해야 했습니다. 화단 안으로 올라온 잔디들은 단단히 뿌리를 내려 깊이 땅을 파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나무의 줄기를 휘감은 녀굴을 제거하는 일은 본 나무를 해치지 않고 해야 하는 세심함까지 필요했습니다. 곳곳에 집을 지은 거미들 때문에 으악~ 비명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땀으로 윗도리를 다 적신 후에야 작은 화단 하나가 정리되었습니다. 이제야 보이는 화초며 허브들, 깨끗이 정리된 화단을 보며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함을 느낍니다.

잡초들을 제거하면서 내 마음의 상태도 이렇게 앓을까 그런 생각이 무심코 들었습니다. 정작 키워 가야하는 귀한 생각과 감정들이 쓸데없는 잡초와 같은 생각들로 잘 자리지 못하고 어수선한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단을 정리 하면서 마음에 무성히 자라 있는 잡초들도 뽑아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너~ 쓸데없는 잡초들!! 전쟁을 선포한다! 딱 기다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찬 송 : 405장, 412장

성 경 : 에베소서 2 : 14-19

말 씬 : 진정한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미얀마의 로힝야족을 위해>

미얀마의 정부군과 반군 모두에게 탄압의 대상이 되어 방글라데시로 탈출하던 중에 드론 공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로힝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개척자들공동체>

국가나 민간단체가 지원할 수 없는 가난과 분쟁 지역에 들어가 그들을 돕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개척자공동체. 현재 방글라데시에 현지사역자와 함께 난민촌에서 로힝야족을 돕고 있습니다. 안전과 필요를 채우시길 위해 기도합시다.

3. 지역사회와 사랑방공동체를 위해

1) 유럽공동체 탐방을 앞두고 있는 멧쟁이 5학년의 일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시다.

2)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 방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위해 기도합시다.

<생활공동체 소식>

여름 작물들 농사가 끝나고 이제 배추와 무 파등 김장을 위한 농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약을 전혀 치지 않는 유기농법으로 기르려하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고구마줄기도 뒤집어주고 배추벌레도 잡는 등 좋은 결실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방모임이 시작되어 생활공동체 식구들도 각 방으로 모여 함께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었습니다.

여러 일들을 함께 공유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됨을 위한 노력들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 장영미 전도사 >